

金洙暎 詩에 나타난 현실 인식의 양상

강 영 기*

차 례

- I. 緒 論
- II. 현실인식의 양상
 - 1. 세계의 용서와 비극성
 - 2. 현실의 확인과 자유의지
 - 3. 일상성의 발견과 인간성 회복
- III. 結 論

I. 緒 論

문학은 현실의 반영이다. 즉, 예술 작품은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인식을 가치 지향적 자기 인식의 형태로 표출한다. 金洙暎 역시 시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현실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부끄럽고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보다도 더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은, 이 뒤떨어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시인의 태도이다. 오늘날 우리 현대시의 양심과 작업은 이 뒤떨어진 현실에 대한 자각이 모체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우리의 현대시의 밀도는 이 자각의 밀도이고, 이 밀도는 우리만의 비애를 가리켜준다.”¹⁾고 밝힌 바 있다. 詩는 삶의 구체적인 양상으로서의 현실과 이를 인식하는 시인의 의식 사이에 지속적으로 대립·갈등하는 긴장 관계의 산물이다. 즉 현실적 삶에서 느끼게 되는 기쁨과 슬픔의 경험

* 남주고등학교 교사

1) 김수명 편, 『金洙暎 전집Ⅱ- 산문』, 집문당, 1983, p. 350.

에 대한 해석과 조명이 詩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金洙暎 시에 나타나는 현실 인식의 유형을 고찰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金洙暎의 詩는 삶의 구체적인 양상으로서의 현실과 이를 인식하는 시인의 의식 사이에 지속적으로 대립·갈등하는 긴장 관계의 산물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시의 본질이 현실 세계와 유리된 완전하고도 독립된 세계라고 할 때, 그 말은 시적 경험이 시 이외의 것을 통해서 얻는 경험과 전혀 다르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타당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시적 경험과 시 이외의 것을 통해 얻는 경험은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며 다른 세계라는 특수성(other-worldly peculiarity)을 갖는 것도 아니다. 경험의 기저를 이루는 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시인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는데 도움을 준다.²⁾

셋째, 현실에서의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는 심도에 따라서 시인의 현실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의 하나는 현실이라는 가장 절실하고 새로운 제재에 가로놓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매진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에서의 자기 자신의 위치를 분리시켜 시대를 초월한 입장에서 인간성을 노래하는 태도이다. 詩가 현대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비인간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현대 문명 속에서 더욱 인간적인 것을 수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식이 필요하다. '참여'와 대비되는 '순수'라는 이름으로 개괄되는 이러한 시가 결코 나태한 정신의 소산일 수 없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³⁾ 따라서 시의 본질적인 조건을 시인 자신이 처한 현실적 상황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문제된다.

2) 김병택, 「시인의 현실과 자유 — 金洙暎論 I」, 「바벨탑의 언어」, 문학예술사, 1986, p. 60.

3) 정한모, 「현대시의 현장」, 박영사, 1983, p. 35.

따라서 여기에서는 金洙暎의 문학 작품들 속에서 현실 인식의 양상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즉 그가 시작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해방과 6·25, 그리고 4·19를 통해 시대와 현실을 어떻게 인식했고 그것을 어떻게 작품에 반영했으며 이를 어떻게 시적 주제로 형상화시키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한 텍스트는 『金洙暎 전집 I』(민음사, 1983)임을 밝혀둔다.

II. 현실인식의 양상

1. 세계의 용서와 비극성

1) '바로 봄'의 의미

金洙暎의 초기 시에 나타나는 어휘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보다'이다. '바로 보다'가 많이 나오는 것은 金洙暎의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에 기인한다.

金洙暎의 초기시가 삶에 대한 비극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의 시에서 구사된 시어들, 즉 <廟廷의 노래>의 '울더라', '우는', <孔子的 生活難>의 '어렵웁다', <아메리카 타임誌>의 '어리석었다', '울던', <이(風)>의 '울리다', <웃음>의 '서러운', '시들어갑니다', '어리석은', '恨歎', <토끼>의 '우는', <아버지의 寫眞>의 '悲慘', '詛呪', '조바심', '無理하는' 등에 의해 입증된다. 시적 정조를 좌우하는 지배적 언어인 이러한 시어들은 金洙暎이 현실을 그만큼 부정적 또는 비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삶의 현실에 대한 비극적인 전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를 차단한다. 그러므로 시인은 삶에 제기되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1920년대에 쓰여진 감상과 퇴폐와 허무의 시들

은 그 예이다.⁴⁾ 그런데 金洙暎은 현실에 대한 비극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비극적 상황을 초월하기 위한 정신적 대응방식을 모색하였다. 현실을, 세상의 허위성을 바로 보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시들은 현실을 바로 보려는 시인의 의지에 해당하는 예들이다,

동무여 이제 나는 바로 보마
事物과 事物의 生理와
事物과 數量과 限度와
事物의 愚昧와 事物의 明晰性을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 「孔子的 生活難」 4연

이 시는 詞華集 「새로운 都市와 市民들의 合唱」에 「明白한 노래」란 표제 하에 수록되어 있다. 이 시를 쓸 무렵 金洙暎은 이미 자신들이 놓여 있는 현실과 괴리된, 지적 포우즈의 시에 취해 있는 박인환류의 모더니즘의 허구성을 인식하고 그들을 불신하고 있었다.⁵⁾

이 시에서 나타난, 현실적 삶을 조건 지우는 일체의 사물을 바로 보겠다는 시인의 결의는 예술가의 양심과 세상의 허위를 망각하고 시적 장난만 일삼고 있는 그들을 불신하는 계기가 된다.⁶⁾ 살아가는 자체를 어렵고 괴로운 일로 생각하는 金洙暎으로서는 세상의 허위에 기만당하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웠다. 따라서 그러한 세상의 허위에 기만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事物의 愚昧와 事物의 明晰性'을 바로 볼 수 있는 정신적 태도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시인

4) 김종윤, 「金洙暎 문학 연구」, 한샘출판사, 1994, p. 116.

5) 김수명 편, 앞의 책, p. 228.

6) 김수명 편, 앞의 책, p. 227.

실제로 그는 그 두 작품이 '詞華集에 수록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粗製濫造한 허야까지 같은 작품'이라고 했다.

은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라는 비장한 어조를 통해 사물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정신적 태도와 진실을 노래하는 것은 죽음에 비견할 만큼 시인의 양심이 절대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인식은 바로 철학적 의미의 자유이다. 철학적 의미의 자유란 관습적 사고 방식에 얽매임 없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곧, 그것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인식이다.

生後의 토끼가 살기 위하여서는
戰爭이나 혹은 나의 眞實性모양으로 서서 있어야 하였다
누가 서있는 게 아니라
토끼가 서서 있어야 하였다
……(중략)……
그는 고개를 들고 서서 있어야 하였다

愚昧와 年齡이 언제 그에게
나타날는지 모르는 까닭에
暫時 그는 별과 또하나의 것을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하나의 것이란 우리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는 曲線같은 것일까
- 「토끼」 5·6연

여기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토끼의 비극적 운명에 비유하면서 시인의 사명을 다하려는 의지는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音程을 맞추어 우는 법도/ 習得하지 못한' 토끼는 바로 현실에 알맞은 음정으로 노래할 줄 모르는, 세상의 허위와 타협할 줄 모르는 시인 자신이다. '고개를 들고 서서' 있는 자세는 바로 현실에 대한 저항적인 대결의 자세이다. 그러한 대결의 자세로 '蒙昧와 年齡'의 무기력 속에 함몰하기 전에 '별'과 '우리의 肉眼에는 보이지 않는 曲線'을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별'이 상징하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진실과 '肉眼에는 보이지 않는 曲線'이 상징하는 세상의 허위를 동시에

지켜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아의 진실과 세상의 허위성을 바로 보려는 시인의 노력은 삶의 현실적 조건들에 의해 장애를 일으킴으로써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다음에 제시되는 시들은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

倒立한 나의 아버지의
얼굴과 나여

나는 한번도 이(風)를
보지 못한 사람이다

어두운 옷 속에서만
이(風)는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올린다

나는 한번도 아버지의
수염을 바로는 보지
못하였다

- 「이(風)」 1·2·3·4연

이 시에서 ‘어두운 옷 속에서만/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올린다’에 나타나고 있는 이(風)는, 사물을 바로 보려는 金洙暎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세상의 허위성을 의미한다. 아버지와 의 관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기대와 희망 사이에서 변민하고 갈등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의 수염’이 상징하는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에 자아의 진실이 압도당

-
- 7) 전기적인 자료를 통해 볼 때 선린 상업을 졸업한 이후 부친이 임종할 때까지 갈등을 일으킬 만한 뚜렷한 사건은 없었다. 金洙暎이 워낙 집안 일에 무관심하기도 했지만, 동경 유학, 만주 이주 등으로 함께 부친과 기거하는 기간이 적었기 때문이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바로 볼 수가 없다. 즉 삶을 지배하는 현실적 조건과 세상의 허위성 때문에 바로 볼 수 없다.

비록 적극적인 행동성이 결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金洙暎의 초기시의 내용적 특성은 현실에 대한 비극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세상을 바로 봄으로써 그 허위성을 발견, 자아의 진실을 구현하는 노력을 계속하려는 저항적 의지의 지속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지의 지속성이 후기시로 가면서 자신의 비극적 현실 인식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2) '전쟁'과 설움

195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쓰여진 金洙暎의 시에서 '설움'은 중요한 모티프(motif)를 이룬다. 그의 설움의 연원은 대개 세 가지로 논의 된다. 즉, 첫째는 시인의 과거, 6·25를 전후한 우리의 역사와 겹쳐져 있는 과거이고 둘째는 생활 현실이며, 셋째는 위의 두 가지와 좀 다른 것으로서, 설움의 의미라 할 수 있는, 살아있다는 증거로서의 설움이다.⁸⁾

여기서는 이중에서도 첫째 설움의 연원인 시인의 과거 즉, 6·25를 전후한 우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시인의 현실 인식의 양상이 어떻게 시로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해방 이후, 6·25 이전의 시기는 좌·우 대립의 시기였다. 문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양상은 다르지 않았다.

조선문화가동맹의 조직, 세력이 강화되자 이들의 정치적 입장을 반대했던 민족진영의 문인들은 중앙문화협회를 중심으로 전조선문필가협회를 창설하고, 문학인으로서의 민주주의 국가건설에 공헌하고 민족문화를 발전시켜 나아가자는 강령을 채택한다. 이단체에 가담하

8) 정현종, 「시와 행동, 추억과 역사」 「金洙暎의 문학」, 민음사, 1983, p. 228.

고 있던 조연현, 김동리, 서정주, 조지훈, 곽종원 등이 별도로 조선청년문학가협회를 조직하여 활발한 문학활동을 전개하게 되자, 조선문학가동맹과 대립관계에 놓이게 된다. 조선청년문학가협회의 활동은 문학의 독자성과 그 자율성에 대한 신념을 지켜 나가기 위한 문학적 실천작업으로 일관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자체가 경향성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신문, 잡지가 대부분 조선문학가동맹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

이러한 좌·우 대립의 사회적 상황에서 6·25가 발발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의 우리의 현실은 더욱 더 비참했다. 金洙暎의 6·25 체험은 1950년대에 쓰여진 대부분의 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25를 바탕으로한 현실의 체험은 설움 의식으로 표출되어 나타난다. 다음에 제시되는 시는 金洙暎의 6·25의 체험을 드러내는 예이다.

나는 원래가 약게 살 줄 모르는 사람이다.
眞實을 찾기 위하여 眞實을 잊어버려야 하는
來日의 逆說모양으로
나는 自由를 찾아서 捕虜收容所에 온 것이고
自由를 찾기 위하여 有刺鐵網을 脫出하려는 어리석은 動物이 되고 말았다.
……(중략)……
「自由가 항상 싸늘한 것이라면 나는 당신과 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살아있는 捕虜의 哀願이 아니라,
이미 大韓民國의 하늘을 가슴으로 등으로 끌고 나가는
저 조그만 飛行機같이 煙氣도 餘韻도 없이 살아진 몇몇 捕虜들의 英靈이
너무나 알기 쉬운 말로 아무도 듣지 못하게 당신의 땀에다 대고

9)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1945-1990)』, 민음사, 1997, p. 35.

비로소 始作하는 꺾속이야기지요。」

「그것은 본 사람만이 아는 일이지요.

누가 巨濟島 第六十一收容所에서 檀紀四二八四年三月十六日 午前
午時에 바로 鐵網 하나 둘 셋 네 겹을 隔하고 불 일어나듯이 솟아는
第六十二赤色收容所로 돌을 던지고 돌을 받으며 뛰어 들어갔는가.」

……(중략)……

내가 六·二五후에 价川野營訓練所에서 받은 말할수 없는 虐待를
생각한다.

北院訓練所를 脫出하여 順天邑內까지도 가지 못하고

惡鬼의 눈동자보다도 더 어둡고 무서운 밤에 中西面內務省軍隊에
게

逮捕된 일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달아나오던 날 새벽에 파묻었던 銃과 러시아軍服을 사
흘을

걸려서 찾아내고 겨우 銃殺을 免하던 꿈같은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平壤을 넘어서 南으로 오다가 捕虜가 되었지만

내가 만일 捕虜가 아니되고 그대로 거기서 죽어버렸어도

아마 나의 靈魂은 부지런히 일어나서 苦生하고 돌아오는

大韓民國 傷病捕虜와 UN傷病捕虜들에게 한마디 말을 하였을 것
이다.

「수고하였습니다.」

- 「祖國에 돌아오신 傷病捕虜 同志들에게」 2·3·8연

이 시는 金洙暎이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씌어졌다. 金洙暎은 1950년 4월 결혼한 후, 정신적으로 안정되기는 했으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있을 무렵, 6·25를 맞는다. 피난을 가지 않았던 그는 '문학가 동맹'에 나가게 되는데, 그 곳에는 백철, 정지용, 노천명, 박영준 등과 월북했던 이태준, 임화, 김남천, 오장환 등이 내려와 있었다. 당시 金洙暎의 내면의식은 전쟁이 민족사에 끼치는 영향, 자신의 시와의 관계, 좌도 우도 아닌 제 3당인으로서 자신의 처신 문제 등에 있어서 극도로 혼란한 상태였다.¹⁰⁾

金洙暎은 그 해 8월 의용군에 징집되어 북으로 끌려갔다가 유엔군의 평양 탈환 시에 탈출을 시도, 남하에 성공했으나 서울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첩자로 간주되어 모진 고문을 받은 후 결국 거제도 포로 수용소와 부산 수용소 병원으로 차례로 이송되었다가 통역일을 봐주던 그 곳 외과원장의 호의로 1952년 12월경에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 시는 이러한 정황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시에서 나타나는 주된 모티프는 자유이다. 金洙暎이 북에서 탈출하여 남하한 것, 그리고 반공포로수용소에서 적색포로수용소로 들어가 들을 던진 것은 모두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래서 그는 부상병이 되어 돌아오는 국군 및 UN군 포로들에게 시의 형식을 빌어 그가 원했던 자유의 의미를 전달한다. 한편 이 시에서 시인은 '北院訓練所를 脫出하여 順天邑內까지도 가지 못하고 惡鬼의 눈동자보다도 더 어둡고 무서운 밤에 中西面內務省軍隊에게 逮捕된 일을 생각한다. 그의 현실인식은 '새벽에 파묻었던 銃과 러시아軍服을 사흘을 걸려서 찾아내고 겨우 銃殺을 免하던 꿈같은 일을 생각한다.'는 구절에서 드러난다. 그것은 바로 전쟁에 대한 무서움 또는 전쟁의 공포에 관한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은 뒤에 나오는 시에서 '설움'이란 주제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다음 시는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팽이가 돈다

어린아이이고 어른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기로우며
물끄러미 보고 있기를 좋아하는 나의 너무 큰 눈 앞에서
아이가 팽이를 돌린다
……(중략)……
都會안에서 쫓겨다니는 듯이 사는
나의 일이며
어느 小說보다도 신기로운 나의 生活이며

모두 다 내던지고
 젊잖이 앉은 나의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정말 속임없는 눈으로
 지금 뺨이가 도는 것을 본다
 그러면 뺨이가 까맣게 변하여 서서 있는 것이다
 누구 집을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餘裕가 있고
 바쁘지도 않으니
 마치 別世界같이 보인다
 뺨이가 돈다
 ……(중략)……
 뺨이가 돌면서 나를 울린다
 제트機 壁畫실의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있는 이 밤에
 나는 한사코 放心조차 하여서는 아니될 터인데
 뺨이는 나를 비웃는 듯이 들고 있다
 비행기 프로펠러보다는 뺨이가 記憶이 멀고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더 많은 나의 착한 마음이기
 뺨이는 지금 數千年前의 聖人과같이
 내 앞에서 돈다

- 「달나라의 장난」 中

金洙暎의 부인인 김현경에 의하면 이 시가 쓰여진 시기는 金洙暎이 부산에서 직장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던 때였다. 그때 그녀는 “익살을 부릴 양으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앙꼬빵 세 개를 담은 접시를 그려 보냈는데,¹¹⁾ 그 그림을 본 金洙暎은 웃다가 울었다는 글과 함께 「달나라의 장난」을 적어 보냈다고 한다. 당시는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피폐해진 상태로, 모든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는 도둑질까지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다. 그런 시기에 자신에게 의지하고

11) 최하림 편저, 앞의 책, p. 125.

있는 아들과 처가 있다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부정한 것을 용납할 수 없고, 예술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졌던 金洙暎에게 생계를 위해 현실과 타협해야 한다는 것은 참기 힘든 일이었다. 「달나라의 장난」 전편에는 이러한 갈등이 빚어내는 허탈함이 드러나 있다. 전쟁으로 폐허화된 거리를 ‘쫓겨 다니는 듯이’, ‘소설보다도 신기롭게’ 살아가면서도 ‘속임없는 눈으로’, ‘나이가 준 나의 무게’로 세상을 바로 보며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에게는 ‘누구의 집을 가보아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는’ ‘별세계’로 인식된다. 이러한 소외감이 의식의 균열을 일으키며 ‘나를 울린다’. 여기서 ‘소리없이 희색 빛으로 도는’ ‘팽이’는 시인의 의식에 포착된 어두운 현실이다. 시인은 자신이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명징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은 ‘나를 울린다’. 즉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運命과 使命’을 자각하고 있는 ‘나’를, 나의 그러한 의지를, 현실은 ‘비웃듯이 들고 있는’ 것이다. 울리는 현실과 울지 않으려는 자아 사이의 긴장과 대립의 현실과 6·25로 인해 생존조차 어려워진 시대상황은 바로 시인의 잠재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설움’의 최대 근거이다. 이 시절에 쓰여진 시에 ‘설움’이라는 단어가 빈번히 등장하는 것¹²⁾은 그 근거가 쉽게 소멸되지 않고 시인을 오랫동안 괴롭혀왔기 때문이다.

문학은 역사적 상황 속에 갇힌 민족의 고통과 환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각기관과 같은 것인 동시에 역사를 투시하는 가장 치열한 정신의 작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정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엄청난 비극 앞에서 동시대의 작가들은 전쟁이란 인간 존재의 극한상황을 미학적으로 수용할 용전력을 갖추지 못한 채 개인의 생

12) 1953~1954년에 씌어진 15편의 시작품에 설움과 관련된 단어(서러운, 설위한, 설움, 구슬픈, 비참한, 서글프게, 애처러운 등)는 18회나 등장하고 있다.

존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천성적으로 자기 자신의 일 외에는 무관심한 金洙暎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¹³⁾ 한마디로 金洙暎은 '설움'을 통하여 현실을 인식하였고 그 설움을 시로 형상화하고 있다.

2. 현실의 확인과 자유의지

4·19는 현실의 부정에 대한 항거로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어떠한 부정에도 항거하는, 모든 비이성적 행위에 대한 반항 정신이고 어떠한 일정한 목표에 의해서 행해지고 그것이 이룩된 다음에 종료되는 성질이 아니라 영원한 이상을 향한 행위이며 그것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미숙과 결함을 보충, 교정하면서 즐기차게 발전하여 가는 意識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4·19를 미완의 혁명이라 부를 때는 적어도 이러한 어느 한 부분이 사상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본질의 변질은 필연적으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외적인 표현의 자유를 누렸던 한국의 시인들에게 커다란 회의와 무력감을 던져주었다. 여기서는 이런 상황에서 金洙暎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였고 그 인식을 어떻게 표출하고 있는지를 고찰해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1) 현실참여 지향과 자유의지

4·19 직후의 金洙暎의 시를 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표현의 직접성이다. 4·19 이후 그가 쓴 최초의 시인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셋개로 하자>는 이전의 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직선적이고 속된 용어들과 함께 金洙暎의 감정상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물론 한 편의 시를 내세워 4·19라는 변수를 들먹이며 그의 시적 변모를 논할 수는 없지만 표현상의 변화를 놓고

13) 김종윤, 앞의 책, p. 42.

불 때 그가 4·19에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틀림없다.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셋개로 하자
그 지긋지긋한 놈의 사진을 떼어서
조용히 개울창에 넣고
썩어진 어제와 결별하자
그놈의 동상이 선 곳에는
民主主義의 첫 기둥을 세우고
쓰러진 성스러운 學生들의 雄壯한
紀念塔을 세우자
아아 어서어서 썩어빠진 어제와 결별하자

-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밀셋개로 하자」 1연

이 시는 4·19 직후, 즉 1960년 4월 26일 발표된 시로서 몰락한 권력을 거침없이 비판하고 4·19라는 엄청난 현실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거나 상투적인 찬미를 지양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에는 '두려움 없이 그놈의 사진을 떼어' 버리자는 독재자에 대한 증오와, '민주주의와 자유는 이제 상식'으로 되었으며 '붙들어갈 사람은 없다'는, 혁명으로 획득한 자유에 대한 감격이 나타나 있다.

그들은 조금도 사나운 惡漢이 아니다
그들은 善良하기까지도 하다
그들은 民主主義者를 假裝하고
자기들이 良民이라고도 하고
자기들이 選良이라고도 하고
자기들이 會社員이라고도 하고
電車를 타고 自動車를 타고
料理집엘 들어가고
술을 마시고 웃고 雜談하고
同情하고 眞摯한 얼굴을 하고
바쁘다고 서두르면서 일도 하고

原稿도 쓰고 치부도 하고
시골에도 있고 海邊가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散步도 하고
映畫館에도 가고
愛嬌도 있다
그들은 말하자면 우리의 곁에 있다
……(중 략)……
우리들의 싸움은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차있다
民主主義의 싸움이니까 싸우는 방법도 民主主義式으로 싸워야 한
다
하늘에 그림자가 없듯이 民主主義의 싸움에도 그림자가 없다
하……그림자가 없다

- 「하……그림자가 없다」中

이 시에는 혁명을 예감하는 시인의 예지가 나타나 있다. 그는 지금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거대한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또는 비굴하게 굴복한 채 살아가고 있는 민중들에게 그러한 사고의 경화현상이나 의식의 마비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시어는 '우리'와 '적'과 '싸움'이다. 철저히 개인적 삶의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던 그의 시가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삶의 문제로 확산됨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나타나는 '敵'도 '그들'이라는 집합적 의미의 복수이다. 따라서 '싸움'도 개체간이나 개체와 세계와의 싸움이 아닌 집단과 집단간의 싸움이다. 민중들과 그들을 억압하는 '그림자가 없는' 폭력집단간의 싸움인 것이다. 이 시기에 씌어진 대부분의 시가 정치적·사회적 성격을 띤 참여시로 변모하게 된 것은 이러한 싸움에 대한 현실 인식에 기인한다.

다음은 혁명의 실패를 통해 현실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의 예이다.

영주어문 제1집(1999)

革命은 안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四肢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革命은 안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렸다
나는 인재 녹슬은 펜과 뼈와 狂氣-
失望의 가벼움을 財産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혹시나 歷史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財産으로 삼았다
……(중략)……

방을 잃고 落書를 잃고 期待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없이 풍성하다

- 「그 방을 생각하며」 中

이 시에는 혁명에 대한 좌절감이 쓰라린 회한의 어조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혁명은 안되고 방만 바꾸어 버렸다’는 자각은 ‘방만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어 버린’ 자탄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방을 바꿨다고 해서 그 방의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니며, ‘싸우라 싸우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가 되는 것도 아니다. 4·19가 남긴 환상과 의지는 아직도 金洙暎의 마음에 남아 울리고 있다. 즉 ‘방을 바꿨다’고 해서 그 방의 의미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하여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金洙暎에게는 자유 의지가 남아 있기에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마저 잃어버렸어도’ 그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고 무엇인지 모르게 기쁜 것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시는 역시 金洙暎의 의식의 변화를 명료히 보여준다.

金洙暎에게 있어서 현실은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기가막힌 일들의 전개’ 되는 곳이며, ‘우리 양심의 24시간이 온통 고문의 연속’으로 인식되는 곳이다. 그래서 그는 그 고통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유를 선택한다. 여기서의 자유는 현실상황에 대한 金洙暎의 인식을 말한다. 그는 자유를 시적, 정치적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에 대해 노래하며, 또한 인간의 구체적 삶을 제시하는 터전으로서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 관심을 기울인다. 즉 현실의 정치적 상황이 폭력적이고 권력 지향적일 때, 자유는 그 권력 앞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金洙暎이 4·19를 전후하여 현실참여 지향의 시들을 창작하는 의도에는 이러한 자유의지의 발산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敵’의 의미

金洙暎은 외부 세계와 그의 자아와의 관계의 ‘단절’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받아들여야 할 것’과 ‘뚫고 나가야 할 것’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때 자신이 ‘뚫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는 ‘적’이라고 명명한다. 그의 시에서 ‘적’이라는 말은 4·19직전에 쓰여진 <하……그림자가 없다> 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적’은 단순히 의식이나 언어에 의해서 개념적으로, 또는 논리적인 재구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행위하는 인간의 체험에 의해서만 그 실체가 비로소 제대로 통찰되고,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생한 삶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행

하고 긍정하려는 데서 '적'의 올바른 인식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더운 날
적이란 海綿같다
나의 良心과 毒氣를 빨아먹는
문어발같다
.....<중략>.....
순사와 땅주인에서부터 過速을 범하는 運轉手에까지
나의 敵은 아직도 늘비하지만
어제의 敵은 없고
더운날처럼 어제의 敵은 없고
더워진 날처럼 어제의 敵은 없고

-「敵」 1·5연

이 시에서 '적'은 '순사, 땅주인, 운전수' 등으로 제시되지만 그가 마주치는 적은 바로 "나의 양심과 독기를 빨아먹는" 존재이다. '적'은 시인의 곁에서 언제나 시인의 방심을 노리고 있다. 시인을 일상적 삶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의 "양심과 독기"는 이 거대하고도 모호한, 살아서 생동하며 수시로 변화하는 '적'과 아주 고통스럽고도 힘든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여기서 "나의 양심과 독기"는 '적'을 바로 보려는 현실의 인식이다.

金洙暎에 있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은 현실인식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그와 가족들과의 관계는 화해적이지 못하고 항상 대립적이다. 그들은 金洙暎이 지칭하는 적들과 동류항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존재가 아내다.

아픈 몸이
아프지 않을 때까지 가자

은갓 식구와 은갓 친구와
은갓 敵들과 함께
敵들의 敵들과 함께
무한한 연습과 함께

-「아픔 몸이」 6연

이 시에서는 조화로운 삶의 현실적 어려움과 이를 위해 노력하는 金洙暎의 치열한 정신이 잘 나타나고 있다. '식구'와 '친구'와 '적'은 동질적 대상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金洙暎이 상정하는 '적'은 실제적인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심리적 상태에서 배태되어 나오는 인식의 산물에 가깝다. '적'은 실제 존재하는 어떤 대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인간 개개인이 자신의 실존을 향해 나아갈 때 그의 자유와 생명을 위협하는 인간의 내적 심리 요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무거운 적'도 '가벼운 적'도 아닌 현실의 인식 속에서 나타나는 '제일 무겁고 무서운 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무슨 敵이든 敵을 갖고 있다
敵에는 가벼운 敵도 무거운 敵도 없다
지금의 敵이 제일 무거운 것같고 무서울 것같지만
이 敵이 없으면 또 다른 敵-來日
來日의 敵은 오늘의 敵보다 弱할지 몰라도
오늘의 敵도 來日의 敵처럼 생각하면 되고
오늘의 敵도 來日의 敵처럼 생각하면 되고
오늘의 敵도 來日의 敵처럼 생각하면 되고

오늘의 敵으로 來日의 敵을 쫓으면 되고
來日으로 오늘의 敵을 쫓을 수도 있다
이래서 우리들은 태평으로 지낸다

-「敵(-)」, 전문

이 시는 '우리는 무슨 적이든 적을 갖고 있다'로 시작하여 마지막 행 '우리들은 태평으로 지낸다'로 끝맺는다. 즉 이 시는 적을 가지고 있어도 태평으로 지낼 수 있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1연에서는 모든 적을 동일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것이 생기며, 비록 그 대상은 바뀔지라도 적대감의 부피는 같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적'과 '내일의 적'은 동일시 될 수 있다. 2연에서는 하나의 적으로 다른 적을 쫓을 수 있다고 말한다. '오늘의 적'과 '來日의 적'이 공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언제나 하나의 적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의 적'을 갖고 있는 동안 새로운 '내일의 적'의 발생을 저지할 수 있고 또 '오늘의 적'은 새로이 '내일의 적'이 생기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그래서 적을 갖고 있지만 '태평으로 지낼' 수 있는 논리가 생긴다. 이처럼 모든 적이 동일시되고 쫓을 수도 있는 것은 적이 그 구체적인 실체를 상실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하고 사소한 것으로 대치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상을 토대로 金洙暎의 시에 등장하는 敵의 의미를 파악하면, 그것은 金洙暎 자신일 수도 있고, 자유를 억압하는 이 시대의 모든 것일 수도 있다. 즉, 역사의 파괴자, 정직한 사회를 방해하는 장애물, 정당화될 수 없는 일체의 사회·문화적 우상 등 여러 가지로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3. 일상성의 발견과 인간성 회복

金洙暎의 관심은 항상 생활과 현실 속에 집중된다. 이런 생활과 현실은 초기의 詩作에서처럼 그저 情態的으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참가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는 動態的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모습은 金洙暎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외부 세계에 대한 사정없는 객관적 분석과 관찰을 거쳐서, 자신의 내면세계에 구현된

새로운 세계의 창조를 위한 보다 적극적 실천의 의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현실은 金洙暎에게 있어서 더 이상 대립적 인식이 대상이 아니라, 그의 시와 늘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랑의 장소로 인식된다. 즉, '단절'과 '설움'의 아니라, '조화'와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金洙暎의 일상적 삶속에서의 현실인식을 통한 조화와 사랑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곧 金洙暎 시의 현실인식 양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기도 하다.

1) 소시민적 삶의 태도와 극복

산업사회의 새로운 계층탄생에서 파생된 사회 구성원인 '소시민'이라는 용어는 현대에 와서 자주 논의되어 왔다. 소시민의 사전적 개념은 서구의 봉건사회가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계층이다. 산업적 중산층에서 비롯되어, 현대에서의 사회적 실체는 구중산 계급인 소기업주, 자영업포상인, 독립자영업민, 자유업자 등과 신중산 계급인 인테리 지식인, 관공리, 예술가 등을 소시민층으로 보기도 한다. 백낙청은 '시민문학론'¹⁴⁾에서 소시민을 "엄연히 시민계급의 일원이면서도 시민의 제반 지배적 결정에는 참여 못하는 지배계급의 구성원이며, 자립자족적인 시민이라는 환상을 끝내 고집하는 현대사회의 수많은 시민들"로 정의하고 있다.

金洙暎의 시에서는 바로 이러한 소시민적 삶의 모습들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의 시에서 소시민적 삶의 모습들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이유로는 혁명의 좌절을 통한 현실인식에서 기인한다. 그는 좌절된 혁명 앞에서 '저항은 무용, 저항시는 더욱 무용'함을 인식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전향을 한 데 놀라면서', "5·16 이후의 나의

14) 백낙청, 「시민문학론」, 『창작과 비평』, 창작과 비평사, 1969, pp. 504-509.

생활도 생활이다/ 복종의 미덕!/ 사상까지도 복종하라”(「전향기轉向記」) 등15)의 회극적 제스처를 보인다. 이때 그는 소시민적 삶 속으로 깊이 침잠해 들어가기 시작하며,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를 구속하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게 된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怪奇한 청년
때로는 일본에서
때로는 以北에서
때로는 三浪津에서
말하자면 세계의 도처에서 나타날 수 있는 千手千足獸
美人, 詩人, 事務家, 농사꾼, 商人, 耶蘇이기도 한
나날이 새로워지는 괴기한 인물

- 「絶望」 1연

이 시에 등장하는 괴기한 청년은 바로 시인 자신을 의미한다. 金洙暎은 성장기에 유학생살을 하면서 동경에서 보냈다. 그리고 해방이 되자, 만주에서 서울에 와서 살았는데, 6·25 사변 중 의용군으로 징집되어 북한에서 훈련을 받다가 탈출하여 포로신세가 된다. 그리고 포로수용소에서 병원 통역원으로 일하게 된다. 앞에서 제시되고 있는 ‘일본→이북→삼랑진’을 통해 이러한 자신의 인생 경로를 정직하게 밝히고 있다. 그리고 시인, 사무가, 농사꾼, 상인 등은 자신이 겪은 생활 속에서의 직업들이다. 그가 생활 속에서 겪은 직업의 변동이나 그에 따른 삶의 모습들을 인정하는 모습은 바로 소시민적인 삶의 태도이다. 다음에 제시되는 시 역시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다.

파자마바람으로 닭모이를 주려 나가서

15) 김화생, 「金洙暎詩 研究」, 제주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6. p. 35.

문지방 안에 夕刊이 떨어져 덩굴고 있는데도
심부름하는 늬더러
「저것 좀 집어와라!」 호령 하나 못하니
이렇게 돼서야 고만이지
어떻게든지 체면을 차려볼 궁리 좀 해야지

파자마바람으로 체면도 차리고 돈도 벌자고
하다하다못해 번역업을 했더니
卷末에 불어나오는 역자약력에는
한사코 XX 대학 중퇴가 XX 대학 졸업으로 誤植이 돼 나오니
이렇게 돼서야 고만이지
어떻게든지 체면을 차려볼 궁리 좀 해야지

- 「파자마바람으로」 2·3연

金洙暎의 문학에 가치와 생명을 부여하는 근원적인 힘은 그의 정직성에 있다. 그의 문학은 정직성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고발적 성격이 강하다. 이런 자기 고발적 성격은 소시민적 삶의 태도 중의 하나이다. 이 시에서도 신문배달원에게 신문을 잘 넣으라는 말조차도 체면을 생각해서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나, 번역한 책의 역자 약력 난에 잘못 기재되어 나오는 자신의 약력을 풍자하는 모습 속에서, 시인의 정직성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그가 여기서 폭로적인 자기분석을 통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소시민적 삶의 일상성 속에 간혀 있는 동시대인들에 대한 도덕적 질타이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시인을 분노하게 하는 현실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지성의 작업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있다 絶頂 위에는 서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중략)……

모래야 나는 얼마큼 적으나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큼 적으나
정말 얼마큼 적으나-

- 「어느날 古宮을 나오면서」 5·7연

이 시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소시민적 삶에서 야기된 분노가 연민과 한탄으로 바뀌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저항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왕궁의 음탕'이나 '언론의 자유'와 같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설령탕집 주인, 야경꾼, 이발쟁이, 동회직원'과 같이 자신처럼 무력하고 미약한 존재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현실과 직접 맞부딪치지 못하고 '웅졸하게 반항'하는 자신을 '비겁하게 옆으로 비켜서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정직한 자기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소시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가 추구하는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사회에 대한 절망과 좌절의식은, 무력한 자신을 '모래, 바람, 먼지, 풀'등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비하시키면서 그의 분노와 항의를 내면으로 응축시켜간다. 따라서 상투적인 자기반성과 자학이 엮보이는 7연의 한탄은 소시민적 삶의 비애에 대한 넋두리이다. 그러나 이런 소시민적 삶의 태도에 국한되지 않고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7연에 나오는 한탄은 이상과 일상 생활의 괴리 속에서 오는 소시민적인 대립 정신과 좌절을 정직하게 드러냄으로써 건강한 시민의식을 획득하려는 통찰과 궁지라 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되는 시 역시 전통의 인식을 통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소시민성을 새롭게 극복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예이다.

傳統은 아무리 더러운 傳統이라도 좋다 나는 光化門
네거리에서 시구문의 진창을 연상하고 寅煥네

처갓집 옆의 지금은 埋立한 개울에서 아낙네들이
 양젓물 솥에 불을 지피며 빨래하던 시절을 생각하고
 이 우울한 시대를 페러다이스처럼 생각한다
 버드 비쇼女史를 안 뒤부터는 썩어빠진 대한민국이
 더러운 歷史라도 좋다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
 나에게 눈주발보다도 더 쟁쟁 울리는 追憶이
 있는 한 人間은 영원하고 사랑도 그렇다

- 「巨大한 뿌리」 3연

이승원은 이 시를 “역사인식의 맹목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¹⁶⁾고 평하고 있지만 시인이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고 하는 것은 ‘진창’을 맹목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 자신의 현실, 모든 진보의 주어진 터전으로서의 자신의 전통이기 때문에 긍정하는 것이고, 뜨거운 열정과 매서운 비판이 하나가 된 태도로서 긍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¹⁷⁾이 더 설득력을 지닌다. 전통과 역사는 비록 그것이 떳떳한 것이 못 된다 하더라도 시인의 ‘거대한 뿌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사랑 없이는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랑의 획득을 통하여 金洙暎은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어느 정도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이상을 토대로 보면 金洙暎의 지닌 소시민적 삶의 토대는 정직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의 정치적 상황을 주어진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는 소시민이다. 그러나 그는 현실적인 여건을 받아들들이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가 시를 통하여 당대의 역사적 현실과 고난을 인식하고, 고통과 고

16) 이승원, 「金洙暎論」 「시문학」, 시문학사, 1983.4, p. 75.

17) 백낙청, 앞의 책, p. 336.

너를 함께 하려는 모습은 바로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2) '사랑'의 확인

金洙暎은 정직한 자기 성찰을 통한 사고의 심화와 사물에 대한 독특한 인식 방법에 의해서, 후기시의 중심적인 주제인 '사랑'을 얻는다. 사랑은 그에게 현실에 대한 관심의 폭과 깊이를 더하게 했으며, 그가 역사적 상황 속에서 결핍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되돌려 놓고자 했던 지배적인 이념이다. 전기시에 나타나는 '단절과 설움'은 '적'의 올바른 인식과 선택에 의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찾게된다. 이 극복의 방법, 치유의 방법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여기서는 金洙暎이 추구하는 '사랑'의 성격, 그리고 그의 후기시가 '사랑'이란 주제의 확산을 통해 생활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인식되어 나타나는지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그가 삶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랑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그치지 않고 자신을 포함하는 삶, 즉 사회 전반의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 글은 이러한 사랑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쓴 「生活의 克服」이란 글에서 '나는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하면서, 사람과 사람 간에 가로 놓인 무서운 장애물로부터 제거해야만 사람들간에 진정한 사랑이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사랑의 장애물에 대한 그의 인식은 비단 인간 사이의 관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 국토분단의 현실은 사랑을 위해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지만 이 불행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 또한 사랑에 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다. 즉 사랑의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최선의 길이 완벽한 자유를 요구하는 것뿐이라는 논리와 비슷한 맥락위에 있고 할 수 있다.¹⁸⁾

金洙暎이 세계와의 화해와 적들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선택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랑이다. 그에 있어서 사랑은 끝없는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종교적이거나 모성애적 사랑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의 허위성을 포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관용적 사랑이다.

사람이 사람을 아끼는 날
소음이 더욱 번성하다 남은 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던 날
……(중략)……
땅의 층이 하늘인 것처럼
이렇게 人情의 하늘이 가까와진
일이 없다 남을 불쌍이 생각함은
나를 또 나의 아들까지도

- 「어름밤」 4·5연

이 시에는 金洙暎이 생각하는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은 자신과 이웃의 삶과 더불어 사회와 역사의 구조적 삶에까지 미치는 것이며 그는 나와 인류를 대등한 무게로까지 사랑할 수 있는 깊이와 시인으로서의 안목을 갖고 싶어한다. 즉 그는 사랑을 통해 자신과 적 또는 자신과 세계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現代式 橋梁을 건널 때마다 나는 갑자기 懷古主義者가 된다
이것이 얼마나 罪가 많은 다리인줄 모르고
植民地의 昆蟲들이 二四시간을
자기의 다리처럼 건너다닌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어째서 이다리가 부자연스러운지를 모른다
……(중략)……

18) 이상옥, 황동규 편, 「金洙暎의 文學- 金洙暎 전집 별권」, p. 290.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反抗에 있지 않다
저 젊은이들의 나에 대한 사랑에 있다
아니 信用이라고 해도 된다
……(중략)……

이런 驚異는 나를 늙게 하는 동시에 젊게 한다
아니 늙게 하지도 젊게 하지도 않는다
이 다리 밑에서 엇갈리는 기차처럼
늙음과 젊음의 분간이 서지 않는다
다리는 이러한 停止의 증인이다
그러한 速力과 速力の 停頓 속에서
다리는 사랑을 배운다
정말 회한한 일이다
나는 이제 敵을 兄弟로 만드는 實證을
똑똑하게 천천히 보았으니까!

- 「現代式 橋梁」 전문

이 시에는, 사랑은 세대간의 격차나 대립, 갈등하는 존재들 사이의 정신적 단절 상태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것이라는 인식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시의 '현대적 교량'은 해방 후의 과도기적 사회 상황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이 시에서의 과도기란 봉건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의 과도기, 일체적 잔재와 신생국적 의욕의 과도기, 구세대와 신세대가 교체하는 과도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과도기적 삶의 과정을 밟으면서 회고주의자가 되는 시인과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젊은이들을 연결해주는 이해로서의 다리와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해 가는 사회 현실을 대변해주는 죄많은 다리의 이미지는 金洙暎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갈등을 대변해주고 있다. 金洙暎은 이 다리를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죄의식 속에서 건너면서 젊은 세대의, 늙은 세대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시인은 그들에게서 새로운 역사의 가능성을 느낀다.¹⁹⁾ 젊은이와 늙은이를 결

합시켜주는 이 사랑의 방법은 현재의 의식 속에서 과거를 연결시켜 주는 역사의 주체화를 뜻한다. 그러므로 사랑의 정신은 대상에 대해 '反抗' 하게 하기보다는 '信用' 하게 하고, 제기되는 반론들을 '찬찬히', '여유' 있게 사고하도록 만든다.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회한한 일이다.' 그것은 '敵을 兄弟로 만드는 實證' 이며 하나의 '驚異'인 것이다. 그는 敵과의 조화로운 공존이 사랑에 의해 가능함을 인식하고 있다.

지금 나는 二十一개국의 정수리에
 사랑의 깃발을 꽂는다
 그대의 눈에도 보이도록 꽂는다
 그대가 봉변을 당한 食人種의 나라에도
 그대가 납치를 당할 變한 共産國家에도
 보이도록

- 「世界一周」 3연

여기에서 金洙暎의 사랑에 대한 생각은 개인과 가족, 사회 또는 전 인류적인 차원까지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된 시의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랑에 대한 그의 확신은 '잘못된 나라' 에까지 사랑의 깃발을 꽂는 행위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차이까지도 사랑으로서 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시들을 토대로 사랑의 의미를 규정한다면, 사랑은 세계 인류의 삶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즉, 사랑은 삶의 방향으로서 그 대상을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전 인류의 차원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차이까지도 포용함으로써 '敵' 을 형제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랑은 金洙暎의 후

19) 이인순, 「시인 金洙暎 연구」, 전북대 대학원 석사논문, 1987, p. 69.

기시의 주요한 내용적 특성을 이룬다.

Ⅲ. 結 論

金洙暎은 한 시대의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아픔에 공감함으로써 시인의 사명을 다하려 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방황, 갈등, 아픔, 좌절 등을 시 속에 진실하게 담아냄으로써 시적 감동을 성취한 인간적인 시인이기도 하다.

시와 생활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시인이란 현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자이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그의 시가 상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초현실적인 시이거나 현실 세계에 무관한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데 만족하는 개인주의적 시가 아니라, 역동적인 현실세계와 그 속에서 생활하는 평범인, 혹은 평범인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내게 했다. 따라서 金洙暎의 시는 당시의 시대 상황 혹은 그의 개인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제, 지금까지 본론에서 시도한 분석 결과에 따라 金洙暎 시에 나타나는 현실 인식의 유형과 양상을 삼아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金洙暎의 초기시에 나타나는 어휘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보다'이다. 그는 '바로 보기'를 통하여 세상에 대한 허위성을 발견하고 자아의 진실을 구현하며 세상에 대한 저항적 의지를 얻고 있다.

2) 金洙暎의 시들을 창작 연도로 살펴 볼 때 '설움'은 195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쓰여진 시들에서의 중요한 모티프(motif)이다. '설움'의 연원은 바로 6·25를 전후한 우리 나라의 역사에 있다. 인간 정신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비극 앞에서 천성적으로 자기자신의 일

이외에는 무관심했던 金洙暎에게 '설움'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3) 金洙暎에게 있어서 현실은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일' 들이 전개되는 곳이며, 우리 양심의 24시간이 온통 고통으로 연속되는 곳이다.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은 양심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자유이다. 여기서의 자유는 현실 상황에 대한 金洙暎의 인식이다. 그는 자유를 시적, 정치적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에 대해 노래하며, 또한 인간의 구체적 삶을 제시하는 터전으로서의 정치 사회적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다.

4) 金洙暎의 시에 등장하는 '敵'의 의미는 金洙暎 자신일 수도 있고, 자유를 억압하는 이 시대의 모든 것일 수도 있다. 즉, 역사의 파괴자, 정직한 사회를 방해하는 장애물, 정당화 될 수 없는 일체의 사회·문화적 우상 등 여러 가지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5) 金洙暎이 지닌 소시민적 삶의 토대는 정직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의 정치적 상황을 주어진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는 소시민이다. 그러나 그는 현실적인 여건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가 시를 통하여 당대의 역사적 현실과 고난을 인식하고, 고통과 고뇌를 결코 피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극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6) 金洙暎 시에 나타나는 사랑은 세계 인류의 삶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위대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랑은 삶의 방향으로서 그것이 적용되는 대상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전 인류의 차원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며,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차이까지도 포용하여 '敵'을 형제로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랑은 金洙暎 후기시의 내용적 특성이다.

<참 고 문 헌>

- 김병택. 「바벨탑의 언어」, 문학예술사, 1986.
- 김수명 편. 「金洙暎 전집 I」, 민음사, 1983.
- 김수명 편. 「金洙暎 전집 II」, 민음사, 1983.
- 김종윤. 「金洙暎 문학 연구」, 한샘출판사, 1994.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1945-1990)」, 민음사, 1993.
- 정한모. 「한국 현대시의 현장」, 박영사, 1983.
- 최하림 편. 「한국현대시인연구 ⑨ - 金洙暎」, 문학세계사, 1995.
- 황동규 편. 「金洙暎의 문학 - 金洙暎 전집 별권」, 집문당, 1983.
- 강현국. 「아버지 콤플렉스의 한 양상-金洙暎의 경우」 『국어교육연구 12』, 경북대 국어교육연구회, 1980.
- 김영옥. 「金洙暎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 김정훈. 「金洙暎 시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 「金洙暎 시연구 I」 『국제어문 제 8집』, 국제대 국제어문학 연구회, 1987.
- . 「金洙暎 시연구 II」 『국제어문 제 9·10집』, 국제대 국제어 문학연구회, 1987.
- 김창호. 「金洙暎 시의 공간구조와 상상력의 지향성」, 제주대 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1992.
- 김화생. 「金洙暎 시 연구」, 제주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백낙청. 「시민문학론」 『창작과 비평』, 창작과 비평사, 1969. 여름호.
- . 「金洙暎의 시세계」 『현대문학』, 1968. 9.
- 이승원. 「金洙暎論」 『시문학』, 시문학사, 1983. 4월호.
- 이인순. 「시인 金洙暎 연구」,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 조준형. 「金洙暎 시연구」,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